



# 유럽환경 NGO의 현황과 활동

박기영 /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환경분야의 NGO(Non Government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rganizations)는 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모든 비정부기구가 이에 해당된다. NGO들은 지역별로, 혹은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서로 연대활동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데, 크게는 아시아 태평양 NGOs, 유럽 NGOs, 아프리카 NGOs, 라틴아메리카 NGOs 및 북아메리카 NGOs 그리고 제3세계 NGOs 등이 있다. 이러한 NGO들이 서로 연계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개발도상국을 도와줄 목적으로 민간환경단체들을 조사하면서 비롯되었다. 그후 1991년 12월 파리에서의 세계 NGO회의인 '미래의 뿌리(Roots of the Future)'와 1992년 6월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의 UN 환경개발회의의 (UNCED)를 참가하면서 현재의 NGO 단체에는 환경보존에 관해서 활동하는 많은 비정부, 비영리 민간단체가 포괄되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오존층의 파괴와 유럽의 산림훼손 등의 경우를 보는데 현재의 환경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졌다. 즉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 피해가 파급됨으로써 환경운동의 세계화(Globalisation of the Environment Movement)가 필요하여 졌고 이와 따라서 일부지역 혹은 전세계적 규모로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의 연대와 정보교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한 빈곤, 영양부족, 인구팽창, 산업, 억압과 폭력, 국가와 지역간 수입의 불평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과 환경 문제를 함께 묶어서 고민하는 많은 민간단체가 탄생하였다. 1980년대 여러 민간단체들에서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번영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개발과 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현재 환경보존은 경제개발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선행조건이 되었다. 환경보존과 개발은 더 이상 서로 대립되는 문제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환경보존과 개발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좀 더 영원한 개발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효율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세우는 길은 환경파괴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환경의 질과 경제개발은 서로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떼어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으며, 환경자원을 볼모로 만드는 경제개발정책은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존과 개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민간단체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증진에 가장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 대해서 민간환경단체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다. 경제개발이라는 것은 원래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과정으로서 두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중간의 타협점은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들 환경단체들은 어떠한 개발에도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시장경제원리에 국제관계가 크게 좌우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동·서 간의, 또한 남·북 간의 민간단체들 사이에서의 대화와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이 일반 시민의 저변까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협조도 점점 증대되고 있다. 현재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의 주요 의제들은 대중운동으로의 확산,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이용, 지속가능한 산업활동 지속성있는 경제 그리고 남·북 문제등이 다뤄지고 있다. 특히 범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간의 파트너쉽을 얼마나 확고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상으로 NGO의 활동을 일반적으로 살펴 보았는데, 다음은 일부 국가들의 활동기금을 중심으로 유럽 NGO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먼저 살펴본 후 NGO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유럽의 NGO들의 활동기금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인구 1인당 가장 많은 액수의 기금이 지출되고 있는 나라는 민간단체의 환경운동도 가장 활발하고 환경의 질도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였다. 또한 환경운동에 쓰이고 있는 자금면에서 절대량으로 볼때는 독일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참고로 인구 1인당 기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보면 카나다는 9.5\$, 일본은 0.8\$, 미국은 10.0\$로서 경제 수준에 비하여 일본은 지역단위의 환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극히 낮은 수준의 비용만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역시 유럽에서 경제조건이 가장 취약한 이탈리아가 가장 적은 액

66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일찍 18세기부터 자연보호운동을 중심으로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멸종동물의 보호운동 등 비교적 자연생태주의적인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 있으며, 인권이나 가난 등 인간의 피억압구조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들이 환경문제도 바로 이러한 피억압구조로부터 기인한다는 시각에서 환경운동을 그들의 주요 활동과제로 삼고있다. 99

표 1. 민간환경운동단체의 활동기금(1990)

	NGO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기금		NGO에 기부되는 공적인 기금 (US백만&)
	총금액 (US백만&)	인구1인당금액 (US\$)	
오스트리아	29.2	3.8	0.8
벨기에	60.1	6.0	1.2
덴마크	28.6	5.6	3.6
프랑스	186.7	3.3	25.6
필란드	35.8	7.2	6.3
독일	756.6	12.0	185.2
이탈리아	42.3	0.7	-
네덜란드	240.1	16.1	183.0
노르웨이	132.0	31.1	71.7
스웨덴	132.0	15.5	91.1
스위스	113.7	16.7	138.4
영국	326.8	5.7	12.4

수의 기금이 지출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각국에서 각각 지불되는 기금외에도 유럽공동체(EC)의 국가들이 함께 마련한 자금으로 환경운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1990년도에는 NGO사업에 114.5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가 와해된 동부유럽의 악화된 환경의 복구를 위해서도 쓰이고 있다.

유럽의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동은 첫째는 폐기물 관리와 원자력발전소의 문제 등 자국의 환경문제를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단체들이 경제발전과 환경보존과의 상호관계와 그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일찍 18세기부터 자연보호운동을 중심으로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멸종동

물의 보호운동 등 비교적 자연생태주의적인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 있으며, 인권이나 가난 등 인간의 피억압구조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들이 환경문제도 바로 이러한 피억압구조로부터 기인한다는 시각에서 환경운동을 그들의 주요 활동 과제로 삼고 있다. 셋째로 특히 두드러지는 활동으로는 저개발국가의 환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인권운동 차원에서 저개발국의 하층계급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시민의 저변그룹(grass root group)으로 부터의 환경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로 동부유럽의 환경문제는 그동안 공산주의 정권하에서 상당히 은폐되어 왔기 때문에 정보도 빈약하고 인적자원도 빈약한 것이 특징으로서 서부유럽의 그린피스등 민간환경단체에서 황폐화된 동부유럽의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을 여러측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개의 민간환경운동단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동부유럽의 환경운동의 현황은 별도로 취급하고자 한다.

1) 경제와 경영을 연구하는 국제학생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tudents in Economics and Management): 벨기에에 있는 단체로서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이 어떻게 조화롭게 절충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며 5만명 정도의 회원이 있으며 회원들의 자체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다루는 의제는 재산림화(Reforestation), 대기오염, 환경교육 및 경제발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2) 형제애의 공유체(Brotherly Sharing): 개발도상국가의 비정형적인 교육과 의식개혁 차원의 교육 특히 시민의 저변에서 부터 시작되는 환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벨기에의 민간환경운동단체로서 1961년에 창립되었으며 의제는 주로 기아, 육지의 보존, 사회정의 및 여성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야생식물의 보존, 저개발국가의 토양보존 및 사막화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단체로서 여성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문맹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농부, 노동자 등 주로 하층계급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바젤 미션(Basel Mission): 스위스의 기독교 단체로서 1815년에 설립되었으며, 공포, 죄, 무지, 질병 및 가난으로 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적정기술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의 보호 토양보존 및 에너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4) World Vision International Switzerland: 스위스에서 1950년도에 창립된 단체로서 1990년도 1년 예산이 193백만달러이며 총 3628명의 상급직원이 외국의 개발도상국가에 근무하고 있는 단체로서 주로 저개발국가의 개발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한 의제로는 식수와 농업, 공업 용수의 개발에 관한 문제, 토양보존, 사막화에 대한 반대, 환경교육, 가난에 대한 구제 및 공중보건과 건강문제를 주제로 주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주로 건강문제에 관하여 활동하고 있다.

동부유럽은 서부유럽과는 다소 상이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동부유럽이 서방국가들의 유독폐기물이 버려지는 장소로 쓰이지 못하게 하고, 또한 환경을 황폐화 시키는 산업기술이나 상품이 서방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문제등에 관한 정보가 거의 은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공개나 원자력의 안정성에 관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동부유럽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대기오염과 에너지문제이다. 구소련, 동독,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 등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황을 많이 방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질이 나쁜 갈탄을 이용하여 화력발전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화력발전의 기술이 낙후하여 발전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동부유럽의 정책결정자들은 심각한 대기오염의 해결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을 생각하고 있으나 민간환경단체들에서는 이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현재의 에너지 수급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전시설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고 또한 전기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막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기의 손실을 막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